

Renal Leptospirosis 1예

연세의대 소아과

박동철 · 최동원 · 이재승

Leptospirosis는 각 Serotype에 관계없이 Leptospirosis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을 총칭하며 Leptospirosis의 종류는 현재까지 18 serogroup에 170 serotype이 확인되었다.

Leptospirosis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연령, 성별, 계절에 관계없이 이환되지만 주로 청소년 및 청장년에 많고 고온 다습한 계절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행성 폐출혈열, 급성 폐출혈 또는 폐염양질환으로 알려져 왔으며 1984년 말 조가 임상적으로 출혈성 폐염이 의심되었던 2예에서 Leptospirosis를 분리하였으며 23예에서 혈청학적으로 진단하였다고 하였다. 1985년 최등이 급성 폐출혈열 환자의 부검에서 Leptospirosis를 최초로 확인하였으며 이등은 1987년 강원도 철원지방을 대상으로 역학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소아연령에 발생한 Leptospirosis는 거의 없으며 특히 신장에 발생한 예는 보고된 바가 없었다.

이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에서 18일간의 두통, 구토, 발열 및 육안적 혈뇨를 주소로 내원한 9세 남아로 급성 신부전이 있던 환아에서 혈청학적 방법으로 Leptospirosis을 진단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신증

전북의대 내과

박성광 · 강성귀

Rheumatoid arthritis(RA)시 전형적인 사구체질환은 잘오지 않으나, 장기간 심한 RA시 사구체에 amyloid가 발생하였던 예를 1929년 Falck가 발표하였으며, RA시 penicillamine이나 gold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membranous glomerulopathy가 발생하였던 예를 보고한 적이 있다.

Membranous glomerulopathy는 HLA DR specificities에 잘 발생하는 것으로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듯하며, RA 환자는 HLA DRW₄에 아주 잘 발생한다고 Stastny는 보고하고 있다.

1978년 Samuels등은 RA와 membranous nephropathy가 동시에 있었던 8예를 보고한 적이 있다.

저자들은 5년전부터 RA로, gold 등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에서 nephropathy로 고생하다가 1987년 1월부터 CRF로 당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로, 이학적 소견과 검사소견, 신조직 검사 등을 종합할 때, RA로 인한 nephropathy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Whole Gut Irrigation 실시 중 Water Intoxication 발생 예

전북의대 내과

박성광 · 장현철 · 강성귀

건강한 성인에서는 신장의 막대한 free water를 배설시킬 수 있는 능력때문에 자의로 물을 많이 마셔서 water intoxication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Whole gut irrigation은 1973년 Hewitt등에 의해 처음 시도된 후 주로 구미에서 수술전 colon preparation에 사용되어 온 방법으로 환자를 앓은 상태에서 경구적 또는 nasogastric tube를 통하여 생리 식염수나 balanced electrolytes solution을 투여하여 항문으로 clear effluent가 나올 때까지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으며 오심, 구토, 복통과 체중증가 등이 관찰되었으나, fluid absorption으로 인한 water intoxication의 발생 보고는 거의 없었다.

최근 저자들은 multiple cecal diverticulosis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33세 남자환자에서, whole gut irrigation 도중 심한 복부 팽만과 stuporous mental state, 때로 convulsion등이 발생하였던 예를 관찰하고, hypertonic saline solution, furosemide등을 투여하여

24시간후에 호전된 증례를 경험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58 -

신증후군으로 발현된 만성수은중독

고려의대 내과

권 영 주* · 위 경 소* · 김형규*

가정의학과

조 기 주

병 리 과

원 남 희

최근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오염으로 중금속 중독이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에서 수은을 민간요법으로 이용하고 있어 중독의 또다른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은에 의한 신손상을 첫 노출의 정도에 따라 급성 세뇨관 피사와 사구체 신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연자들은 민간요법으로 수은 증기를 장기간 흡입한 뒤 신증후군으로 발현된 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52세 여자로 입원 1년 전부터 구실과 우측 슬관절통이 있어 내원 8개월전까지 약 6개월간 상기 증상 에 대한 한방요법으로 수은을 밀폐된 용기에 연소시킨 후 그 증기를 1회에 5~10분간 50회에 걸쳐 흡입하였다. 그 후 피로감 오심 구토 및 식욕 부진이 점차 나타나다가 내원 2주 전부터 전신부종 및 호흡 곤란이 발현되어 내원 하였다. 이학적 검사상 혈압은 90/70 mmHg, 안검 부종, 구실, 경도의 복부 팽만 및 이동탁음계와 중등도의 하지 함입부종이 있었다. 검사실 소견은 혈액 검사상 Hb 14>g/dl 크레아티닌 1.0mg/dl로 정상 소견이나 총단백 3.2g/dl, 알부민 0.9g/dl로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총 콜레스테롤 391mg/dl 총지질 1080mg/dl로 증가되어 있었다. 요 검사상 24시간 뇨단백은 13.1g이었으며 현미경적 혈뇨는 적혈구 3~6/HPF, 과립상 원주 0~1개였다. 또한 C₃ 91mg/dl, C₄ 49mg/dl로 정상 소견이었다. 혈청내 수은 농도는 19.02 µg/dl, 뇨중 농도 14.43 µg/dl, 머리카락 내 농도는 4.91 µg/dl였으며 신장조직 검사상 만성사구체신염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prednisone 0.5 mg/kg 투여 4주후 증세의 호전 및 5주 후 현저한 검사상의 호전이 있었으며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외래로 추적 관찰중인 바 양호한 상태이다.

- 59 -

신후성형술의 경험

부산의대 비뇨기과

최 성 · 윤 종 병

1976년 1월부터 1987년 3월까지 만 11년 3개월간 당과에서 신우 요관 이행부 폐색으로 신우 성형술을 실시한 73예에 대한 수술 성적과 아울러 슬후 6개월 이상 추적관찰이 가능한 62예에 대하여 개선의 정도를 점수 평가법으로 분석한 보고한다.

1) 수술방법은 73예중 68예는 일차적 신우 성형술을 (Anderson-Hynes법 51예, 단순신우요관 문합술 17예), 나머지 5예는 신루설치 후 이차적으로 신우성형술을 (Anderson-Hynes법 4예, 단순 신우 요관 문합술 1예) 실시하였다.

슬후 합병증은 장기간의 요로 감염 2예, 슬후 재협착으로 인해 재수술 1예, 그리고 2예에서는 슬후 농신 및 주위 조직 감염과 유착으로 부득이 신적출술을 실시하였다.

2) 슬후 3개월~1년 사이에 IVP를 실시하여 슬후의 형태 및 기능의 개선의 정도를 점수 평가법에 따라 분석한 슬후 성적은

1) 슬후 소아가 성인에 비하여 개선 효과가 현저하였다.

2) 슬전 UTI가 없는 예에서 UTI가 있는 예에 비하여 개선 효과가 현저하였다.

3) Splint카테터 유치 기간은 개선 효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4) 신루관 카테터 유치 기간은 개선 효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